

지난해 외지인 제주 주택 매입 15% 늘었다

전체 거래량 7161호 중 1458호… 매입 비율 21% 기록
아파트 거래량 2024년 377호→작년 418호로 11% 증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다른 지방 거주자들의 제주지역 주택 매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발표한 2025년 12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7161호로 2024년 6479호보다 10.5% 증가했다. 이중 다른 지방 거주자(외

지인) 거래량은 1458호로 전년도 1263호보다 15.4% 늘었다. 2024년 거래량과 도외인 거래량이 각각 3.0%, 17.4% 감소한 추세에서 반전 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전체 거래량 중 외지인 매입 비율도 2024년 19.5%에서 지난해 21.4%로 늘어나면서 다른 지방 거주자들이 제주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

지 않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택 거래량 중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3128호로 전년도 2544호보다 22.9% 늘었고 도외인 거래량은 2024년 377호에서 418호로 10.9%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지역 대상 대출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투자처를 제주 등으로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감면 혜택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지역 미분양 주

택 해소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상상 최대치를 기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여전히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발표된 '12월 기준 주택 통계' 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을 2030호에서 2123호로 수정했다. 도는 제주시 도연동에서 신규 분양이 이루어진 Y공동주택이 준공 후 입주자 모집 형태로 이뤄지면서 통계에 추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위영석기자

“6년 연속 산불 제로” 제주시 통합관리 체계 가동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제주시는 총 사업비 30억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또 4개소에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3개소의 산불감시소도 개선한다.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는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이달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 배치했다.

또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동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 대응해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4억9300만원을 투입해 ‘산림생태복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율 확충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우 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미숙기자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가 5일 제주시 호텔 시리우스에서 제주도 주최로 열렸다.

강희만기자

도,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

“수눌음 문화·사회연대 경제조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제주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키우겠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5일 제주시 호텔 시리우스에서 ‘지역의 힘으로 세상을 훨씬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 컨퍼런스’를 개최해 제주형 기본사회 구상과 실천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이사장은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등과 함께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대등한 인격체로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외부의 불확실성으로

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와 지역경제를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세상을 바꾸는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사회연대경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이사장은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등과 함께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대등한 인격체로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외부의 불확실성으로

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집단적 방어 기제는 오직 사회연대경제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영훈 이사는 숫자 중심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이사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맞춰 제주 역시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연대 성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제주 고유의 수눌음 공동체 문화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율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무병묘〉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도내 / 국내육성품종〉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포트묘〉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식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다. 선발되면 3월 1일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시 관내 산림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올해 숲가꾸기 페트롤은 조림지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내 광범위하게 분포한 데굴 제거와 풀베기, 위험목 제거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작업들을 우선 처리하게 된다.

문미숙기자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자원순환 모델로

445개 수거함 5개 권역별로 대행사업자 선정 운영

지난해 860만원 수익… 올해 이용료 1246만원 받아

서귀포시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사진)’이 자원순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시는 시 전역의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민간 의류수거함을 철거 후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445개를 제작·설치하고, 5개 권역별 대행사업자를 선정 운영해 지난해 860만원의 이용료 수익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의류수거 민간 대행 사업자가 의류수거함 연간 이용료 1246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의류수거함 연간 이용료는 개당 2만8000원이다.

시는 돌담과 감돌색으로 디자인하고, 불법 스티커 부착방지 특수 페인팅을 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제작·운영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신규 수익원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문미숙기자

“중소기업 5년 근속 시 최대 1440만원 지원” 도, 40~64세 중장년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모집

중소기업에 다니는 40~64세 중장년 근로자에게 최대 2040만원(자부담 포함)을 지원하는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이 오는 23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년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내고,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매월 12만원씩 적립해 총 2040만원(근로자 600만 원, 기업·제주도 각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올해 14억81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참여자 862명과 신규 200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격 확인 및 선정 절차를 거쳐

공제 계약을 맺게 된다. 문의 710-3797, 754-5159. 오소범기자

다. 선발되면 3월 1일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시 관내 산림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올해 숲가꾸기 페트롤은 조림지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내 광범위하게 분포한 데굴 제거와 풀베기, 위험목 제거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작업들을 우선 처리하게 된다.

선발 규모는 총 7명으로, 산림 경비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예초기 사용과 숙련된 조작이 가능해야 한

문미숙기자